

Deloitte.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Newsletter

「이사회의 브랜드와 평판 관리 감독」 및 10월 동향

2024.10



Contents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03
II. 규제 동향	05
III. 거버넌스(G) 관련 뉴스	12
IV. 그룹·센터 소식	14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이사회와 브랜드와 평판 관리 감독

2024년 9월, Deloitte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On the Board's Agenda: Brand and reputation stewardship」

- 기업 브랜드 손상은 기업 가치, 윤리적 기준, 제품 신뢰성,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반응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거버넌스 분야임
 - 이러한 광범위한 요소를 감독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회사 이미지에 대한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상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 할 수 있음
- 브랜드와 평판은 기업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이 두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여러 부서를 아우르는 감독 접근 방식이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
- 브랜드와 평판 관리 감독의 접근 방식



원문 다운로드

구분	주요 내용
브랜드 가치 조정	· 사명과 가치에 부합하는 브랜드 전략 개발 및 주기적 업데이트 권장
임원 인센티브	· 장기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임원 보상 계획에 브랜드 및 평판 관련 지표 포함
의사결정 프로세스	· 경영의사결정시, 장기적 평판 영향 사항을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도록 요청
이사회 관리	· 이사회 평가 시, 이사가 회사의 가치를 잘 지키고 있는지 평가 고려

- 브랜드 및 평판 개선 관련 이사회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이사회 체크리스트

- 현재 브랜드 전략이 장기적인 비즈니스 목표와 일치하는가?
- 회사는 현재 브랜드 건전성과 평판을 어떻게 측정·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지표들이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가?
- 현재 기업문화가 브랜드 평판에 어떤 영향(긍정/부정)을 미칠 수 있는가?
- 이사회는 브랜드 및 평판 관리 논의에서 CMO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 경영진은 브랜드와 평판 고려사항을 경영의사결정에 통합하기 위해 어떤 프로세스를 활용하는가?
- 중대한 평판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회사의 위기 관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중대한 시장 변동이나 사회적 변화에 맞춰 브랜드 전략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회사는 브랜드 가치와 평판 관리 노력을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가?

기술을 선도하는 이사회: 기술 논의를 촉진하는 방안

2024년 7월, Deloitte Insights, 「The tech-forward boardroom: Fostering richer boardroom conversations on technology」

- 기술이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이사회와 기술 리더는 조직 내 기술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양방향 대화를 나눠야 함
- 기술이 조직 전반에서 비즈니스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기술적 역량을 갖춘 이사회 구성원을 선임하려는 이사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딜로이트의 2023 글로벌 기술 리더십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조직의 67%가 이사회 구성원 중 1명 이상이 기술 리더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0년의 56%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임
- 기술·통신은 신임 이사들의 최다 출신 업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와 기술 리더(최고정보책임자, 최고기술책임자, 최고정보보안책임자 등)가 기술 주제에 대해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함
 - 서베이에 참여한 이사회 구성원 중 36%만이 기술 리더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최고경영진 10명 중 4명 이상이 기술 문제에 대한 이사회 감독 범위나 깊이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함
- 이사회는 아래 질문을 통해 최고정보책임자·최고기술책임자와의 기술 관련 논의를 촉진할 수 있음



원문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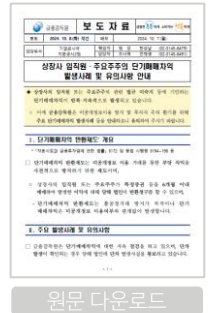
기술 관련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이사회 체크리스트

- 비즈니스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 주요 기술 장애물은 무엇인가?
- 기술 투자의 실행/성장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 조직은 어떻게 잠재적인 기술 맹점을 완화할 수 있는가?
- 향후 어떤 수익 채널을 추구하고 싶은가?
- 다른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 조직과 무엇이 다른가?
- 조직의 기술 인재 역량은 어떠한가?
- 자원의 제약이 없는 경우, 어떤 점진적인 기술이 즉각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
- 목표로 설정하기에 적합한 문샷(Moonshot)*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연구나 도전을 뜻함

상장사 임직원, 주요주주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2024.10.08 (화) 금융감독원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불공정거래 방지가 목적이나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함
- 금융감독원은 단기매매차익 점검 중 관련 법규 이해 부족 등으로 단순·반복적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주요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함



주요사례 및 유의사항

- 매수·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CB↔보통주, BW↔보통주, EB↔보통주 등)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며, 수량 및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여부를 판단
-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여부를 불문,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대상임
- 임직원의 경우 매도·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경우 차익 반환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주주의 경우 매수·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반환대상이 됨
- 특정증권 등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뿐만 아니라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하여 얻은 단기매매차익도 반환대상에 해당
-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다수의 매매거래 중 손실이 발생한 거래는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
-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사유에 해당 시 해당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단기매매차익은 미발생이나, 그 이외에 6개월 내 다른 매수와 매도 거래가 있다면 단기매매차익은 발생 가능함
 -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 공개매수 응모에 따른 주식등 처분, 공로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 제8조)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시해야 하며,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게 있음
 - 해당 법인이 적절한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는 해당 법인을 대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보험산업의 건전경쟁 확립방안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2024.10.04 (금)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신뢰 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 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함
- 보험산업의 경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해 왔고, 보험사기 등 업권 특수적인 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단기성과주의식 불건전경쟁 속에서 보험사 내부통제 기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음
 - '18년 이후 금융사고 연평균 14.5건, 88.5억원 발생(금감원)

●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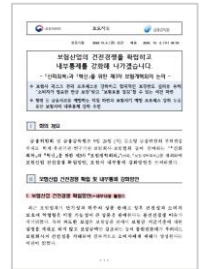
1.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

- 소비자화 금전거래 등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은 장기간 연속(5년)근무를 금지하고,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하여 복수의 인력·부서가 참여하게 함
- 임직원의 1% 이상을 준법감시 인력으로 확충하게 하고, 준법감시 직원의 50% 이상을 전문인력(자격증 보유자,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으로 구성함
- PF대출 및 거액 송금거래 등에 대한 자금집행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명한 자금집행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위탁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위탁 계약 방법 및 절차 처리기준을 마련함
-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제출 서류의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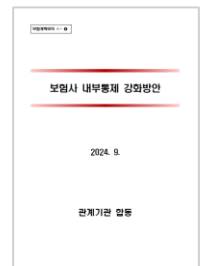
2.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명시화

- 보험상품 담보별 보장내용 등에 대해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를 실시하여 상품위원회에서 그 결과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계약자의 담보별 보장한도 설정·심사 시에는 기존 계약(타사 계약 포함)의 보장금액 한도를 합산하도록 하여 과도한 보장한도 설정을 방지함
- 보험사기 목적의 보험가입 방지를 위해 운영한 가이드라인(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주요내용을 법제화하고, 사망담보 한도 설정시 소득 대비 납입보험료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고, 중복·과다 보험가입건(계약자·피보험자 상이, 사망보험금 30억 이상 또는 계약건수 4건 이상)의 경우 특별 인수심사를 실시함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 사기행위 보고 서식 마련 등이 포함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함

- 상기 방안은 법규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임



원문 다운로드



별첨 다운로드

'24년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2024.09.27 (금)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 9월 2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의 공동 주최로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최근 내부통제 주요 현안에 대해 감독당국, 협회 및 업계 간 인식이 논의됨
- 주요 내용

1. 검사사례

-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 내부통제 취약요인, 최근 위법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착안사항 등을 안내하여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역량을 강화할 것을 당부함
- 단기성과만을 중시하는 경영문화,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함
-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객중심 경영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함

2.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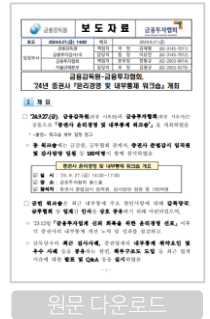
- 증권업계는 '리스크관리 조직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준법감시 사례'를 발표하며 부서간 협업체계를 통한 전사적 노력이 필요함을 공유함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조조직 통한 우수사례', '중·소형 증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방안' 등 회사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내부통제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함

3. 모범규준

- 금융투자협회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범죄고발기준 등을 정립하는 협회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함
- 금융범죄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보고 업무를 체계화하고,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횡령, 사기 등 중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고발 절차·기준을 강화함

4. 책무구조도

- 금융투자협회는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비하여 외부 연구용역 기관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가상의 증권사를 상정한 조직 구성, 책무 구분 및 책무별 관리 의무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회사별 특성에 맞는 도입방안 등을 논의함



기업 밸류업을 위한 공시담당자 설명회 개최

2024.09.27 (금) 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는 9월 27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상장기업 공시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함
 - 이번 설명회는 공시사례 공유·교육에 대한 실무자의 수요가 많음을 고려하여 상장기업의 밸류업 공시 준비과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됨
- 설명회는 선제적으로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의 실무자가 계획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과정 절차 및 내용을 소개하고 Q&A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신한지주(7월 26일 공시), 콜마홀딩스(6월 26일 공시)
 - 상장기업의 높은 관심으로 당일 설명회는 2차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공시담당자 등 실무자 총 630여 명(약 500사)이 참석함
-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공시 기업의 현장감 있는 사례 공유를 통해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밸류업 공시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향후에도 상장기업 사내·사외이사 대상 설명회(10월 17일), IR 담당자, 재무담당자 대상 설명회 등도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기업의 밸류업 노력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임



원문 다운로드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T/F 운영 결과 및 향후 계획

2024.09.24 (화)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을 활성화하여 회계감사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등과 함께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T/F'를 운영함

*알고리즘을 활용한 위험분석, 대용량 데이터 검토, 단순 반복업무 자동수행 등

- '23년 11월부터 다양한 감독 이슈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추진과제를 도출함

- 주요 추진과제

1. 디지털 감사 활용 근거 및 품질관리 절차 명확화

- 회계감사기준·품질관리기준을 개정하여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 근거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절차 명확화
- 신뢰성 검증 및 데이터 보안 관련 실무지침, FAQ 등 디지털 감사 실무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

2. 표준감사시간 반영 검토

- 디지털 감사 효과의 표준감사시간 반영 여부 및 반영 방안을 결정하고, 관련 영향에 대한 실증 데이터 확보방안 등 검토

3. 회계법인가격차 완화 및 전문인력 양성

- 초기 투자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추진,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형 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에 대한 접근성 및 관심도 제고 예정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시 IT 교육실적 반영,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과정 확대·개편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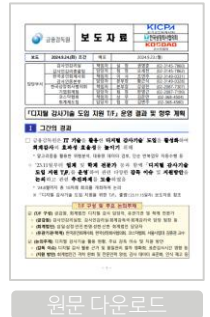
4. 감사 데이터 표준화

-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감사 데이터 표준화 등 추진

5. 피감사기업 등 인식 제고

- 인식 제고 및 관심 확대 유도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의 기업 대상 정기 설명회·세미나 등에서 디지털 감사 소개 및 디지털 감사 활용 사례 등 작성·배포
- 디지털 감사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감사 활용 사항을 감사보고서 첨부서류(외부감사 실시내용)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감사 활용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회계법인의 인식을 제고하여 디지털 감사 활성화가 기대됨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간담회 개최

2024.09.19 (수) 금융위원회

- 9월 19일,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의견수렴(24.5~8월) 주요 내용에 대해 기업 및 경제단체, 유관기관과 논의함
- 대다수 기업이 기후 공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하였으며, 이는 기업들이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하고 있고 기후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데서 비롯함
 - 106개 기업 중 96개 기업이 기후 관련 사항을 먼저 의무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함
- 주요 의견



1. 국내외 투자자 주요 의견

- 기후 공시는 필수이며,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사항도 투자자에 똑같이 중요한 만큼, 관련 일정 제시 등 필요
- 스코프3 정보 측정 및 보호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나, 투자자로서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관련 정보 필요
- 글로벌 자본시장에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SSB 기준 채택은 긍정적

2. 공시기준 내용 관련

- 공시대상의범위관련, 해외자회사의 경우 기후 관련 신뢰성 있는 정보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 존재
-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관련,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아직 없으며 주요국 중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유예할 필요성 제기
- 정책목적 공시 관련, 공시의 유용성은 동의하나 공시부담 가중 우려 존재

3. 참석자의 다양한 의견

- (개별기업) 전반적으로 기후에 대한 공시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나,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공시기준이 빠르게 결정되어야 하며, 보다 명확한 지침 및 우수사례 제공 필요
- (개별기업)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고 배출량 산정에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유예가 필요하며, 보고대상 기업 범위와 관련하여 기업 판단 하에 일부 제외할 수 있는 기준 필요
- (경제단체) 기후 관련 공시의 필요성은 있으나,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율공시부터 시작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기준 제공 등이 필요

II 규제 동향

2024년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2024.09.11 (수)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24년도 상반기 지적사례 13건을 발표함으로써 K-IFRS 시행 이후 14년간('11년~24년 상반기) 총 168건의 사례를 공개함
- 금번 공개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 관련 4건으로, 이외 '매출 등 허위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및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 자산·부채' 4건 등으로 구성되었음

<표1>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단위: 건)

공개시기	'24.9월	'24.5월	'23.11월	'22.6월	'21.12월	'21.6월	'20.8월	'19.12월	합계	
공개대상연도	'24.상	'23년	'22년	'21년	'20년	'18년~ '19년	'15년~ '17년	'11년~ '14년	'11년~ '24.상	
지적 유형	① 매출매출원가	2	6	3	4	4	5	12	4	40
	② 투자주식	4	-	4	3	4	5	6	4	30
	③ 재고·유형자산	2	2	3	3	-	1	5	7	23
	④ 기타자산부채	4	4	5	2	8	2	5	7	37
	⑤ 주식 미기재 등	1	2	3	3	11	2	9	7	38
지적사례 수(합계)	13	14	18	15	27	15	37	29	168	

●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1.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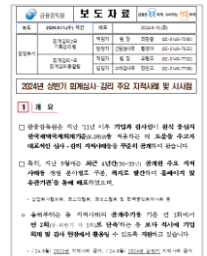
- 회사는 매출 및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하여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함
- 감사인에게 허위로 작성된 공급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출하여 외부감사를 방해함

2.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회사의 해외 자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완전 자본잠식을 기록하는 등 손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자금순환을 통해 현금창출능력 등 경제적 실질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회사는 영업손실 기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해 종속기업투자주식(추가 출자지분)에 대하여 손상차손 인식을 누락함

3.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 회사는 재고자산 판매 시 관련 매출원가를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허위의 유형자산 등으로 대체하여 해당 연도의 비용을 과소 계상함



원문 다운로드

III 거버넌스(G) 관련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경제계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 과도한 경영 규제 우려' [연합뉴스]
-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동의...상법 개정은 의견 수렴해야' [아주경제]
- 한국, 지배구조 평가 12개국 가운데 8위...주가지수 상승률은 5위 [네이트 뉴스]
- 상장사 경영권 분쟁 '역대급' ... 한국식 지배구조 경고음 [아시아경제]
- 거래소, '코리아 밸류업지수' 발표...삼전·현대차 등 100종목 포함 [뉴시스]
- 지배구조 모범관행 첫 시험대...5대 은행장 인사 레이스 시작 [경향신문]

이사회·감사위원회



- 기업 여성 임원, 2년새 3%p 증가... '사외이사가 대부분' [뉴시스]
- 신한지주 이사회, 경영진에 강력한 내부통제 주문...'기업가치 제고 핵심' [연합인포맥스]
- 상법 교수 63%,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반대 [인더스트리뉴스]
- 매출액 30대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18.8%, 여성 임금은 남성의 71% 수준 [더나은미래]
- 고려아연 사외이사 '적대적 M&A 반대'...MBK '이사회 기능 상실' [아이뉴스24]
- 롯데그룹 상장사, 이사회 역량평가표 도입완료...밸류업 전걸음 [마켓in]
- 오픈AI, 독립 이사회 감독 위원회 설립 계획...'모델 출시 연기 권한 가져' [디지털투데이]
- 100대 기업 사외이사 중 법조인 58명...여성은 22명 [법률신문]

한국 딜로이트 그룹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4 웨비나' 개최 [이투데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4년 자문위원단' 위촉 [조세일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AI 시리즈 세미나 시작... 첫 주제는 '거버넌스' [파이낸셜뉴스]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의 생성형 AI 사용 현황 2024년 3분기' 리포트 발행 [뉴스와이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해외 진출 기업 위한 글로벌 인사 세무관리 세미나 개최 [사례뉴스]
- DWS운용, '김앤장 입주' 크레센도빌딩 매각 주관사에 딜로이트 안진 선정 [인베스트조선]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일본계 기업을 위한 2025년 한국 개정세법 대응 세미나 개최 [사례뉴스]

III 거버넌스(G) 관련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계투명성



-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사추천위 과반 이상 외부전문가로 구성...투명성 '제고' [경향신문]
- 밸류업 기업 혜택도 좋지만 회계투명성도 중요한 가치 [매일경제]
- IPO 준비기업, 재무제표 심사강화된다... 금융위 '회계감독선진화 방안' 발표 [더밸류뉴스]
- 서울변호사회, 공정 투명한 기업내부통제 '외감법 개정안' 환영 [로리더]
- 한국캐피탈,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착수...'내부통제 강화' [아시아경제]

부정행위방지



- 금감원-금투협, 증권사 내부통제 워크숍...'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머니S]
- 보험사 건전경쟁 방안 확립... '소비자편익 극대화' [아시아타임즈]
- KB금융, 윤리경영 준법 체계확립 '최우선'...'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뉴스웍스]
- '원자재값 담합 부정행위 뿌리 뽑는다'... 국토부, 합동점검반 운영 [아시아투데이]
- '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뉴시스]

규제동향



- 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 간담회 개최...기후 공시 필요성 공감 [이로운넷]
- 금감원, IT 기술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개선 [아주경제]
- 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반년 내 자사주 팔면 차익 모두 반환 [매일경제]
- 거래소, 코스피 공시담당자 워크숍...밸류업 참여 당부 [조선비즈]
- 공매도 전산화 차질 없게...금감원, 불법 공매도 판단 기준 제시 [머니투데이]

M&A



- 한국, 적대적 M&A 사례 3배 증가...'주주환원 강화 경향' [연합인포맥스]
- 글로벌 M&A 시장, 전년비 6% 증가 예상...2025년까지 상승세 이어질 것 [글로벌이코노믹]
- 높은 중소기업, M&A로 승계한다...중기부, 특별법 제정 추진 [뉴스1]
- 현금 많은 소비재 인프라 기업 M&A 늘 것 [매일경제]
- 저축은행 M&A 규제 풀어줘도 찬바람 [매일일보]
- 빨간 불 들어온 보험사 M&A 시장...새 주인 찾기 빠그덕 [경기신문]

IV 그룹·센터 소식

UPCOMING EVENTS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4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웨비나

신청하기

- 대상: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감사위원·감사·C레벨·실무진
 - 일시: 2024년 11월 5일 (화) 14:00 ~ 16:10
 - 장소: 온라인 생중계 웨비나
 - 문의: krccg@deloitte.com, 02-6099-4275
- * KICPA CPD 등록 가능
** 교육확인서는 웨비나 종료 후 온라인 발급 가능

Agenda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효과적인 국내외 공시 감독 및 현황

사회자: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14:00 ~ 14:05	Opening Remarks	장수재 회계감사부문 대표
14:05 ~ 14:30	I. 경영지표와 ESG 공시	유승원 동 센터 자문위원·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14:30 ~ 14:55	II. 공시 관련 사외이사의 역할	노준화 동 센터 자문위원·충남대 경영학부 교수
14:55 ~ 15:05	Break Time	
15:05 ~ 15:30	III.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개선방안 및 글로벌 이사회 공시 감독 현황	오정훈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파트너
15:30 ~ 15:55	IV.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공시와 이사회 역할	장준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통합재무서비스 그룹 파트너
15:55 ~ 16:10	Q&A / Closing Remarks	세션 강연자, 사회자

※ 세부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V 그룹·센터 소식

UPCOMING EVENTS |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웨비나] 기후 변화에 대한 이사회 역할: COP29

구분	내용
일시	2024년 11월 21일 (목) 오전 1: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피에르 클라마듀(Jean-Pierre Clamadieu) 회장(Engie SA), 사외이사(에어버스 SE/TE Connectivity Ltd) • 쉘라 머레이(Sheila Murray) 이사회 의장(Teck Resources), 이사(BCE Inc/Granite REIT), 파트너(Pradeep Philip) 겸 책임자(딜로이트 액세스 이코노믹스) • 제니퍼 스타인만(Jennifer Steinmann) 리더 (딜로이트 글로벌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의 결과와 시사점을 되짚어볼 예정임 • 주요 이사회는 배출량 감축,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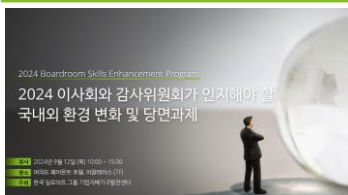
 신청하기

IV 그룹·센터 소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4 Boardroom Skills Enhancement Program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다시보기 및 스케치 영상

- 지난 9월 12일 개최된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은 '2024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인지해야 할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당면과제'를 주제로 참석자 간 양방향 소통을 통해 당면과제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됨
 - Keynote Speech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세션 I -1. 자금통제 공시대응을 위한 지배기구의 점검포인트
(정현 한국 딜로이트 그룹 내부회계관리제도 TF 파트너)
 - 세션 I -2. 자금사고 방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결 기반 진단과 맞춤형 솔루션
(이승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자산개발 및 데이터분석 그룹 수석위원)
 - 세션 II .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
(장정애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세션 III . Digital Transformation - 이사회가 주목해야 할 AI·빅데이터의 최신 동향과 기업 거버넌스 역할 (이성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컨설팅부문(AI&DATA) 상무)



2024 Boardroom Skills Enhancement Program 다시보기

2024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인지해야 할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당면과제



2024 Boardroom Skills Enhancement Program 현장 스케치 (Long ver.)



2024 Boardroom Skills Enhancement Program 현장 스케치 (Short ver.)



IV 그룹·센터 소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온라인 교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 동영상

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CFR Regulation (상/하) 2. ICFR 감사방법론 3. 위험평가 4. 범위선정 5. 통제활동 (상/하) 6. 변화관리와 설계평가 7. 운영평가 (상/중/하) 8. 모니터링 및 보고 9. 연결 ICFR 구축 및 운영 (상/하) 10. 정보기술일반통제 (상/하) 11. 자동통제 (상/하) 12. Post ICFR 운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동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의 동영상 교육을 공개함 • 2023년부터 시행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해 보다 심도 깊은 동영상 교육컨텐츠를 준비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동영상 교육수강 및 수료증발급은 상단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동영상 80% 이상 수강 시 수료증 발급 가능함

 신청하기

IV 그룹·센터 소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온라인 교육]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국/영/중문)

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 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 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 6.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 •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

 동영상 보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파트너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자문교수단



유승원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준화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 krccg@deloitte.com

 Deloitte Insights

내 손안의 경영 산업 트렌드,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카카오톡채널

딜로이트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톡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IOS]



[카카오톡 채널]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